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1
쿠바, 영화 그리고 기억
박종욱 지음 | 204쪽 | 14,000원

오랫동안 서구의 헤게모니에 짓눌려 뒤늦게 자립한 쿠바는 곧이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쿠바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그와 직면하여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영화가 지닌 의미를 '쿠바 영화와 파식민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다룬 것이다.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
송병선 지음 | 268쪽 | 19,000원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영화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계열의 배급사와 자국 배급사와의 불균형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영화는 미국의 영화와 어떤 변별성을 지녀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는 라틴아메리카 영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시리즈 13

한국학술정보(주), 이담북스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blog 블로그 : http://blog.naver.com/ksiblog
페이스북 : '이담북스' 검색

브라질의 역사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원주민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원주민의 땅이었다. 유럽이 그 땅에 발을 내딛으면서 브라질이 '발명'되었다. 브라질은 그 땅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 '브라질'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 후의 역사는 브라질다운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나라의 이름, 국명 자체에 역사의 흐름과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브라질의 역사는 지배자가 만든 역사인 것이다. 지난 500년 동안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위계질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브라질의 역사는 권력관계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book.kstudy.com
값 20,000원 ISBN 978-89-268-2409-2

브라질의 역사
김영철 지음
이담 Books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13

Brazil history

브라질의 역사

김영철 지음

김 영 철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latin@pufs.ac.kr

『브라질의 인종 아비투스와 상징적 폭력』(2010)
『브라질 흑인의 유토피아와 킬롬비즘』(2009)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활용방안』(2007)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비즈니스』(2007)
「포르투갈을 만난 아프리카」(2010)

본 도서는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시리즈입니다.

이담 Books는
한국학술정보(주)의 지식실용서 브랜드입니다.